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전 군민 대상 1인당 30만원씩 선불카드 지급… 사용기간 6월 30일까지

진안군은 20일부터 마을을 찾아 제4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현장 지급을 시작한다.

군은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있지만 장기 지속으로 인한 군민 피로감 해소 및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군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제4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2만4,699명의 진안군 전 군민이며 1인당 3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3월 20일~6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신속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별 상황에 맞는 지급처와 방식을 정하되 최대한 마을현장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맞벌이 및 마을현장에서의 현장 배부 시 수령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 25, 26일 양일간 주말배부 서비스도 시행한다. 미수령자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진안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전주시 호성동에 소재한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분실 등에 대비해 지역농협이나 전북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기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군민들의 고통을 이루어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겠지만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길 바라며, 군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봄맞이 한우 특판행사 개최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23~24일 군청 광장서 최대 30% 할인

장수군은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협약을 맺은 유통주체(장수농협·장계농협, 무진장축협, 장수한우지방공사, 장수군유통사업단)들과 오는 23일~24일 이틀간 군청 광장에서 지난 17일 입고된 1++등급 한우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소비자가 한우 도매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소값 하락,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한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장수군이 마련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2020년 9월 장수군 유통 주체·생산자협회(전국한우협회장수군지부)와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협약을 맺고 공동 브랜드명 '장수한우'를 출범했으며, 롯데슈퍼·백화점, 세계로 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과의 유통을 통해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수한우 브랜드의 인지도와 지명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몽골 시장까지 진출해 명품 장수한우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 해 11월 한우 부문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장수한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출원 등록의 쾌거를 달성하면서 법적·제도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으며, 품질의 고급·표준화와 홍보의 체계화로 장수한우의 브랜드가치가 국내외적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소값 하락,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행사기간 동안 품질 좋은 장수한우를 저렴하게 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서 생명의 신비 체험

반디랜드 방문객 대상 살아있는 곤충체험 기회 제공

반디랜드 무주곤충이야기 체험관

무주군의 곤충이야기 체험관이 살아있는 곤충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6일 개장한 곤충이야기 체험관은 다양한 곤충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프로그램을 개편, 3월 1일부터 정상운영 하고 있다.

운영은 화~일요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체험은 일일 4회 운영하고 있다. 반디랜드 소규모 동물동장 주변에 위치한 '무주곤충이야기 체험관'은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디랜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곤충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식용곤충의 한정적인 전시·체험에서 벗어나 무주에 서식하는 살아있는 곤충과 나비 전시를 통해 생동감이 넘치는 체험장으로 탈바꿈 했다. 체험관 구성은 로비에 사계절 살아있는 곤충전시와 나비 전시실 등 식용곤충 전시실, 나비 사육실, 식용곤충 교육 체험실로 구성돼 있으며, 큰줄흰나비, 힌점박이 꽃무지, 쌍별 귀뚜라미 등 14종 곤충을 전시 중에 있다.

특히, 무주에 서식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살아있는 곤충과 나비를 볼 수 있으며 곤충반지만들기, 곤충컬러비즈만들기 등 체험거리를 제공해 곤충의 이해와 친근감을 키워주는 자연학습 공간으로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향후 계절별로 무주에 서식하는 곤충과 나비 전시물의 변화를 주어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곤충전문가가 직접 해설해 주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주에 서식하고 있는 애반딧불이를 비롯해 물방개, 장구애비 등 수서곤충과, 나비와 장수풍뎅이 등 애완학습곤충을 체험할 수 있다.

기술연구과 반딧불이팀 정재훈 팀장은 "무주에 서식하는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곤충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곤충이야기 체험관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지원금 20만원 지원

무주군이 아이울음소리 들리는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 참신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무주군 지역 내 출생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생 축하 첫 통장 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존중하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출생 아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출생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설 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출생 아동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무주군보건의료원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박인자 과장은 "행복한 결혼, 감동적인 출산으로 희망찬 살기 좋은 무주만들기 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의결

동창옥 의원 대표 발의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노사 관련 민원과 법률해석의 전문성을 확대하고자 동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지난 16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대상을 기존의 변호사,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 연구원에서 노무사까지 확대하고,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복잡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발맞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입법자문 외에 변호사 및 노무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법적분쟁 및 노동관련 민원상담 등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동창옥 의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어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사문제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고충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 위한 팜 메이트 구성

무주군이 앞으로 영농현장의 궁금증을 풀어가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업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을 위한 팜 메이트(행정+농가)를 구성하고 농업 현장에서 함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농업인과의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기술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무주군 특화품목별 팜 메이트 활동을 팀별로 구성, 농업 신기술 개발에 따른 소통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블루베리와 사과, 포도 3개 품목에 5팀으로 나눠 무주군의 영농현장에 나가 올 한해 최선을 다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품목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팜메이트 농가와의 교류를 통해 전문적인 현장실습과 적극적으로 농가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청취

무주군은 2023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앞두고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15만4,7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누리집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후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5년 연속' 획득

진안군 대표홈페이지(www.jinan.go.kr)가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공인 인증심사기관(한국 웹접근성 인증평가원)으로부터 5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에 1년간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전문가 심사'와 '장애인 사용자 심사'에서 모두 합격해야 한다.

군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 상지장애인을 위해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페이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됐으며, 동영상 재생 시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웹접근성과 웹 표준을 모두 준수하면서 모바일 접속시에 자동 변환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서비스를 제공하며 콘텐츠를 지속 수정·보완하는 등 디지털 정보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차별 없는 웹 환경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중이다. /진안=우태만 기자